

# 충남 및 인근지역 근린자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사례를 중심으로

박 상 우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사무처장)

### 1. 들어가며

-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째. 그럼에도 지금까지 “도대체 왜 지방자치를 하는지?,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지방자치를 해서 좋아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라는 식의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또 막상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의 현실임.
  - 본래 지방자치라 함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의 자율과 자치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임. 즉 중앙집권체제에서 권력 통치의 한계를 보완토록 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제도로서,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을 지속가능토록 만드는 것이 곧 국가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였으리라 사료됨.
  - 그러나 지역주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코자 했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이 처한 지방자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음.<sup>1)</sup> 이에 대한 원인과 분석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에 기초하기 보다는 중앙집권세력과 정치인들의 정당치(政堂治)로서, 지방 토착세력의 토호정치(土豪政治)로서, 행정 관료들의 관치(官治)로서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임.
- 따라서 가장 귀기울여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지함의 소치 또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 정도로 매도 당해왔고, 또 지역의 이익과 자치권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 또는 주민의식의 미숙함, 시기상조론, 무용론 등으로 무력화되어졌던 일들 모두가 어찌보면 예측가능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임.

---

1) 지역이 처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의식, 그 오류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온 지방자치 학계나 시민사회의 논거로 충분하기에 생략기로 함.

- 이렇듯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2010년 9월에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 이러한 우려는 지방행정체제의 적정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지자체의 규모와 자치역량, 근린자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나 필요성,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제적·정치적 문제의식 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 다만 이를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구역 조정이나 행정 효율에 집착한 중앙 집권론자들과 엘리트들에 의해, 또 그럴 듯한 명분 뒤에 정치적 이해계산에 따른 중앙정치권과 지역 토호세력에 의해 변용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주체의 문제제기이며,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이 안에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 또 얼마만큼 담으려 했었는가? 라는 가치의 문제제기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간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된 대개의 지방자치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이며, 이의 가장 큰 손실은 지역이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이와 맞물려 있는 ‘근린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등도 중앙정부나 소수 기득권자에 의해 기획되고 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더 뚜렷해짐. 그러기에 좀 늦더라도 우선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들이 지역주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코자 하는 참여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던가를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음. 즉 작은 지역공동체에 기초하여 형성된 지역정체성이나 향토의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지역과 그 구성원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임. 아울러 근린자치의 범위라 할 수 있는 ‘마을’이나 ‘동네’는 단순히 물리적 범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안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문화’,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살아 숨쉬는 장(場)임을 최우선 전제로 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마을’이라는 ‘생활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와 ‘문화’, ‘가치’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지역민 또는 공동

체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냄으로서 충남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근린자치의 모델을 모색하고 확산하고 실현하는데 일조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하지만 사례연구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 타지역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경험적 한계 등으로 인해 1차적으로는 충남 홍동지역의 공동체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인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료 등을 인용,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코자 함.

## 2. 충남 홍성군 홍동면 마을공동체 사례

### 1) 충남 홍성군 홍동면

-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총면적 38.52km<sup>2</sup>로, 11개의 법정리와 33개의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09세대, 3,776명(2012년 7월 현재)이 살고 있는 지역임. 홍동은 진안같이 큰 산이 솟아있거나 양주처럼 큰 강이 흐르는 곳도 아니며, 어떤 특별한 지역사회관광 자원도 없고 큰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곳도 아님. 농가 1,347호 중 대부분이 3,000평 이하의 소농들로 밀집되어있는 지극히 평범한 농촌지역임.
- 이 지역의 변화는 1958년 학교와 지역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풀무학교가 팔괘리에 세워지면서 시작되었음. 풀무학교는 농업과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에 남아 활동할 사람을 배출하였고, 학교와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실천하며, 유기농업 등 외부정보와의 창구역할 등을 담당하였음. 이러한 결과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마을기반 조직들을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안교육과 친환경농업,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의 모델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되어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

### 2)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일하는’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

#### (1)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팔괘리)

○ 현재 흥동지역의 생산, 가공, 소비, 유통, 교육, 문화, 환경 등 지역의 주요한 사업들의 시작은 '폴무학교(폴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작은 실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들 역시 폴무학교를 통해 양성됨. 1960년대 학교 안에서 시작한 학용품 공동구매로부터 소비조합의 전신인 구판장이 1980년 '폴무소협(폴무소비자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리대에 시달리는 농촌 보편의 과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협동의 힘으로 해결코자 한 주체적인 움직임으로 1969년 '폴무신협'이 발족되었음. 이 밖에도 협동적인 지역사회를 실천하고자 '도서협동조합('66)', '식가공조합('77)', '농기계수리조합('79)', '대체공업연구소('81)' '폴무학교생협('93)', '폴무비누공장협동조합('94)'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태동하게 되었음.

○ 흥동에 유기농업이 자리 잡게된 배경이나, 농촌마을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된 바탕 역시 폴무학교와 그 인적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음. 1975년 폴무학교에서 유기농업을 구체화하면서 수업생(졸업생을 뜻함)들이 헌신적으로 농사를 짓게되었고, 1980년대에 유기농업에 기반을 둔 폴무생협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생산지로서 생산자협동조합의 토대가 마련됨. 이와 맞물려 문당리에 오리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고 생태마을을 조성한 농촌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도 폴무학교 출신에 의해 주도되었음.

이밖에도 폴무학교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1964년부터 면민체육대회를 주최하였고, 1967년 겨울문화강습회, 1975년 식생활 개선 강습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974년 폴무수업생 이번영이 지역신문의 일환으로 흥동신문을 발간하기도 함. 1978년에는 태양열온수시설 개발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운동을 시작하였고, 1979년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갯골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한편, 1980년에는 폴무학교 후원회의 제안으로 현물을 이용한 지역사회 복지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양곡은행'을 창립하기도 함. 1987년 흥성 농민회 조직과 1989년 다목적 건물로서 지역교육관을 준공하는 등 폴무학교는 마을과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됨.

## (2) 풀무학교 전공부 (운월리)

- 그러나 최근 풀무학교의 외부여건이 변화되면서 지역에 사는 학생이 입학하여 지역에 남아 활동하는 ‘지역학교’라는 성격이 많이 회색되어지게 됨. 전 사회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풀무학교는 지역에 사는 학생이 떨어질 정도로 입학 경쟁율이 높아졌고,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아졌음. 2001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서 부터는 학생들의 활동도 교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이처럼 외부여건이 변화로 인한 반성과 성찰이 마을자치를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서 마을대학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1년 ‘마을과 더불어 사는 풀뿌리 지역대학’으로서 정규대학과정이 아닌 비학위과정 2년제 직업과정으로 ‘풀무학교 전공부’가 설립됨.
- 풀무학교 전공부는 지역과의 교류와 개방을 중시하며 주민이 교수가 되고 주민이 학생이 되어 유기농업을 근간으로 농촌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원예, 목공, 그림 등의 평생 지역교육을 실현하는 풀뿌리 주민대학을 지향하고 있음. 풀무 전공부의 출현은 다시한번 지역과 학교의 통합적 사고를 확장해가는 계기가 됨.  
이 시기에 즈음하여 지역의 작은가게로서 ‘풀무학교생협(‘06)’, 나무 창작공간으로서 ‘갯골목공실(‘07)’, 한지공예 등의 ‘반진고리공방(‘07)’, 한의학의 하나인 ‘뜸방’이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됨. 이 시기에 ‘그물코출판사(‘04)’와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09)’이 흥동으로 이사 온 것도 지역내 새로운 기회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후 잡지 ‘지역과 학교’ 발간, 지역내 유·초·중·고 학생들과 공동으로 ‘손모내기(‘04) 행사’ 등 풀무 전공부의 출현은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3) 온 마을이 학교(?)

- 학교와 지역과의 통합적 사고와 실천양식은 지역사회 전체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함. 급식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03년 지역내 친환경농업 주체들이 유기농오리쌀을 급식으로 공급하면서 공립학교의 지역화에도 힘쓰기 시작함. 지역주민과 교사들의 모임에서는 지역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흥동범교과과정 연구회(‘05)’를 결성,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역

내 생태친화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공동 교육과정인 '농사체험'은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일정을 조정하여 공동 실천한 사례이고, 공동 교육과정 초기단계에서 가을축제를 지역축제의 형식으로 기획한 '홍동거리축제('06)' 역시 6회째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지역에서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02)', '갯골생태농업연구소('08)', 그 안에서 시작된 지역 논생물·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논배미('08)',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를 돕기위한 '마실이학교('09)' 등이 진행되었고, 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역교육기관이 연합해 만든 생태교육단체 '꿈이자라는뜰('10)', '빠꾸기합창단('11)',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11)', '교육농연구소('11)' 등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조직으로 설립하게 됨. 이밖에도 '인문주간 행사('10)', '지역·농촌·농업주간 행사('10)' 등을 비롯하여 주민 교사 양성과정으로 원예, 목공, 뜸방, 요리, 공예, 미술교실 등 조직화된 주체들에 의해 교육의 내용은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의 설립이나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민활동과는 별개로 홍동면 역시 보통의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과 연관성이 깊은 기관장 회의나 이장단회의, 새마을회, 부녀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사회, 마을총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

### 3) 지역순환농업을 주도하는 농업 조직들

#### (1) 풀무센터 (금평리)

- 풀무생협으로 더 알려진 '풀무센터'<sup>2)</sup>는 지역농업조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조직임. 1960년 풀무학교내 '구판장'으로 시작하여 1980년 지역으로 나와 풀무학교 교사, 졸업생, 지역주민 등 27명이 공동출자하여 '풀무소협'으로 설립하고 도시 소비자단체와의 유기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시작함. 1987년에는 교통의 발달과 대형슈퍼마켓의 등장으로 공산품 판매를 중단하고, 한국여성민우회생협과의 본격적인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홍동지역의 농산물이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확산 유통되기 시작함.

2) 2011년 풀무생협(소비자조합)과 풀무영농(생산자조합)이 분리된 이후 부터 '풀무센터'라고 부르고 있음. 풀무센터는 풀무영농, RPC, 주곡-채소-축산 등 3개의 품목별 영농조합, 사회적기업인 풀무나눔미 등을 모두 통칭함.

1999년 생협법 시행에 따라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하였고, 2003년에는 ‘풀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경종-축산의 지역순환형 농업을 지향하는 본격적인 생산자 협동조합의 면모를 갖추게 됨. 같은해 ‘오리쌀 풀무식혜’ 가공품을 출시하며, 생산-가공-판매 시스템을 구축했고, 2004년에 들어서는 오리농업 벼산지 100만평을 확보하고 생산위원회 산하에 25개의 쌀작목반, 15개의 채소작목반, 5개의 축산작목반을 구성함. 2008년 ‘친환경 벼도정공장’을 준공하였고, 자회사 성격의 ‘홍성풀무(주)’<sup>3)</sup>와 ‘풀무축산(주)’<sup>4)</sup>를 설립함. 2009년에는 생산자의 고령화 문제나 친환경급식을 대비하기 위해 ‘채소 소포장센터(현재 풀무나누미영농조합법인)’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함. 이어 2011년 풀무나누미영농조합법인이 홍성군 제1호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됨.

- 풀무생협은 ‘지역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공동체 구축, 지역순환농업의 완결로 지속 가능한 영농의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알수 있듯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음.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의 정체성을 갖춰가면서 1999년 매출액의 5배 이상의 증가세로 2004년 매출액이 51억원, 2005년에는 103억원, 2006년 150억원으로 크게 성장함. 2006년 유기농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8년 축산과 가공 부문이 확대되면서 2008년 143억원, 2009년 149억의 매출로 돌아섰지만, 누적되어온 여러가지 내·외적인 문제<sup>5)</sup>로 인해 2009년 아이쿱생협에 위탁경영을 하게되고, 2011년말 결국 풀무생협과 풀무영농은 분리를 결정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생협연대와의 물류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홍성군 내 학교급식, 일반유통시장 확대 등의 판로 다각화에 대한 준비도 있었지만 농촌학교의 현실과 상품규격, 물류 문제 등 이를 감당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간의 풀무생협은 단순히 생산물의 생산과 출하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교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주민·생태·공동체 운동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이후 소비자조합으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재정비하여 그 가치와 정신을 계승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3) ‘홍성풀무’는 친환경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떡가공 시설로서 2011년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음.

4) ‘풀무축산’은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을 주도하면서 싱긋식당 등을 개업, 2011년에 ‘소걸음’으로 법인명을 전환함.

5) 풀무생협과 영농의 분리, 위탁경영 등과 관련해서는 원인과 논란이 다양하기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함.

## (2) 홍성유기농 (장곡면)

- 홍성유기농은 풀무생협 출신 정상진이 홍동면에 인접한 장곡면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며 지역농업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만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자 조직임. 장곡면 대현리는 1997년부터 오리농법으로 유기농업을 시작, 2005년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됨. 홍성유기농은 조합원 80명과 직원 15명, 쌀작목반 30명, 채소작목반 27명, 한우작목반 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육매장('06)'인 수원지점과 홍성축협 하나로마트에 '친환경야채 코너('06)' 입점, 도농교류의 거점역할을 하는 '정다운 농장'과 소량다품목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채담이농장('11)' 등을 가지고 있음. 현재 서울, 경기, 충청권 지역 18곳에 친환경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홍성로컬푸드센터'를 설립하고, 꾸러미사업을 시도하기 함.
- 매출액은 2005년 창립당시 6,800만원에서 2009년 26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지역내 매출 역시 3억 5천만원 정도로 전체 매출액의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역내 바른 먹거리와 친환경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농촌마을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주민 교육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장곡면에서 자발적 주민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동아리 모임에 대한 지원 등을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함.

## (3) 홍동농협 홍성친환경작목회

- 풀무학교 출신 주형로를 중심으로 오리를 이용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1994년 19농가 3만여평에서 오리농업 단지를 만들며 '홍성친환경작목회'가 결성됨. 홍성친환경작목회는 농민 스스로 마을단위 작목반을 구성, 홍동면내 12개 작목반으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 유기농사에 필요한 생간관리, 교육, 인증 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음. 홍동농협과의 계약을 통해 생산계획량과 수매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수확과 동시에 홍동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음.
- 홍성친환경작목회는 생산과 출하 이외에도 농촌의 문제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도농일심 함께 짓는 농사 오리입식대회('95)', '가을걷이 오리쌀축제' 등을



통해 해마다 2,000여명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고 있음. 이밖에도 찾아가는 벼농사 교육 등 현장맞춤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4) 기타 농업경영체

- 이밖에도 홍동지역은 식품가공과 판매수입으로 풀무학교를 지원키 위한 '바른식품('89)', 지역내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을 위해 만든 '풀무사람들('01)', '평촌요구르트('04)', 지역친환경 쌀 가공을 위한 '다살림('05)', 풀무신협 부속 '미생이세상('06)', '풀무축산('08)', '홍성풀무('08)', '채소소포장센터('09)', '내포막걸리('10)', 유기농식당 싱긋('11) 등이 설립되어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4) 홍성환경농업마을 -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문당리6)

#### (1) 홍성환경농업마을

- 1977년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된 문당리는 4개의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오지마을임. 1990년대초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개방 압력에 위기를 느낀 풀무학교 출신 주형로가 풀무학교 교장 홍순명의 제안으로 1993년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마을주민 대부분이 오리농 벼농사를 짓게 됨. 1996년 이후에는 홍동농협과 단지 계약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다가, 2001년 홍동농협과 전량수매 협정을 체결하게 됨. 2004년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년간 70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오리농법 쌀 단지를 조성함.
- 1997년부터 벼 수매를 할 때 가마당 몇 천원의 자금을 떼어 환경기금을 마련하기 시작, 3년간 4,500만원을 모아 땅 3,000평을 구입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흙벽돌 3만장을 찍어 2000년 준공된 곳이 '홍성환경농업교육관'임.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은 강당과 식당, 숙소 등을 갖추어 각종 단체의 연수와 견학 등 연간 2만여명을 유치하고 있으며, 오리쌀 축제 등 도농교류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음. 아울러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주변에 각종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생활유물관('02),

---

6) 문당리는 홍동면에 소재한 14개 법정리 중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동면을 문당리로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정미소(‘03), ‘찜질방(황토건강체험방, ‘04), ‘전통가옥체험관(‘08), ‘물놀이장(‘08), ‘생태연못(‘08) 등을 조성함으로써 흔히 파워빌리지(Power-Village)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됨.

## (2)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 문당리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이라는 장기 플랜을 녹색연합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도움으로 마련하게 됨. 백년 계획은 크게 ① 넉넉한 마을만들기, ② 오손도손한 마을만들기, ③ 자연이 건강한 마을만들기, ④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만들기를 사업전략으로 삼고 있음.

- 백년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에 있었던 경제활동 조직과 농업교육, 사회적 자치조직 이외에 문화, 의료, 복지, 홍보, 정보, 인프라, 녹색관광 등의 물적·인적자원과 조직 확대를 통해 자조적 협동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생·자립 방안을 나뉘어 담아낸 것이라 볼 수 있음.

대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넉넉한 마을만들기는 경제적 자립방안으로, 오리쌀 특화, 한약원, 한우원, 종합가공장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마을의 옷샘터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녹색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유통거래로 도농간 교류와 홍보를 통해 지구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새로 창출된 소득은 마을 공동소득으로 관리하고 재투자하여 마을경제를 완성한다는 것임.

둘째, 오손도손한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소속감 강화 및 마을공동체문화 복원 방안으로, 환경교육관내 도서관 등의 면학시설과 정보시설을 구비하여 주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인 유치로 청년층을 확장하여 중장기적으로 미래세대를 이어간다는 내용이며, 마을내 한약원과 인근지역 의료시설을 연계하여 평생의료 체계를 확보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춰 마을을 정보 네트워크 화한다는 것임.

셋째, 자연이 건강한 마을만들기는 생태계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계획 방안으로, 하천을 살리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작은 하천, 농수로 등을 자연하천으로 살려 하천변의 식생을 복원하고, 삼교천 유입구에 자연정화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자연 정화력을 높이며, 숲을 가꾸어 녹색휴양림으로 활용하고,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시설(BMW)을 만들어 지역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임.

넷째,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만들기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다는 방안으로, 주택 전면에 온실 설치나 지붕녹화를 통한 단열, 태양열 이용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나 축분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환경소재를 사용한 주택, 빗물 및 자연정화 연못을 활용한 물의 순환, 생태 화장실 등을 통해 쓰레기없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임.

## 5) 변화와 새로운 시도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홍동면)

### (1)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 운동

-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동면은 풀무학교와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인적·물적·무형자원이 상당히 축적된 지역임. 그러나 제 영역별 성장에 따라 상호간 이해부족과 지역내 갈등이 존재해 왔으며, 정보공유나 결속력은 점차 약화되기에 이름. 즉 지역문제가 곧 커뮤니티 전체로서의 문제와 해결과제라는 인식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농업경영체의 부실한 운영이나 농촌의 고령화, 농지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과 연대, 통합적 대안 등은 미흡하였음. 이러한 고민과 함께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과 맞물려 이 지역에서도 농촌마을공동체의 실현가능한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대안이 일부 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됨.
- 더 나은 농촌마을공동체 복원을 향한 지역내 소통과 연대, 협동과 나눔에 대한 논의는 2010년 2차례의 마을토론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행안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문당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상사업비 등이 결합되면서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 (2)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 2010년 12월에 설립된 마을활력소는 ‘시민센터’로서의 기능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운영방식을 통해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지역과 지역 간에 소통과 연대를 기반으로, 먹고사는 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동경제로서 열어감으로서,

지역이 지역을 돕는 자조적 협동사회로, 보다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로 복원하고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마실통신(웹진)' 발행 등 주민과 지역간 소통과 연대를 위해 정보나눔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차표 인터넷 발권 등 주민생활서비스 활동,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활동,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 필요에 의한 주민교육사업 지원활동, 농업과 생산활동에 근간을 둔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발굴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이 시기에 즈음하여 마을주민 120여명이 공동 출자하여 만든 마을카페 '동네마실방 뜰('11)', '농생태원예조합 가꿈('11)', '농교육네트워크('11)', '지역화폐('11)', '디자인조합('11)' '마을사진관('11)', '협동농장('12)', '할머니장터조합('12)', '마을신문('12)' 등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하게 됨. 나아가 마을활력소는 흥동지역을 넘어 지역과의 공동협력을 촉진코자 지역내 23개의 사회적경제 관련단체가 모인 '흥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도 중간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3. 충남 인접 지역의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마을자치회
- 부산광역시 물만골 공동체
- 서울 성미산마을 공동체
- 부산 반송, 부산 물만골 공동체,
- 경남 산청 안솔기마을
- 전북 부안 시민발전소
- 시흥 연두농장, 안산 텃밭공동체